

#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 취소 ‘파문’

### 광주시, ‘김윤석 총장’ 문체부 등의 받아 놓고 백지화 총장 공석에 실무협상·조직운영 난항 ... 후유증 클 듯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사무총장이 공석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는 조직위 살림을 도맡을 사무총장 적임자를 내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돌연 인선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신뢰를 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지난 19일 사무총장이 없는 상태로

출범해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다.

조직위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조직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부회장을 겸임하는 사무총장이 중앙정부, 세계수영연맹(FINA) 등을 오가며 실무협상, 조직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내년 국비 74억원 확보, 시설 배치, 운영비 협상 등이 사무총장의 대외 역량이 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그러나 이

처럼 중요한 사무총장 없이 조직위부터 출범시켰다.

사무총장 공석사태는 시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최근 조직위 출범에 앞서 지난달 김윤석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으로 문체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사실상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함께 대회 운영을 이끌어갈 문체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비지원 입장 불가 방침에 예산 확보가 불투명

한 상황에서도 지원 당위성을 강조해 결국 예산 배정을 도왔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의 인선 백지와 과정이 문체부와 시의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 공석사태는 결국 윤 시장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을 고수하더라도, 문체부나 기재부 고위 관계자 등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시로서는 후유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 시장은 27일 귀국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인니 메단시 교류협력사업 확대

20년지기 자매도시인 광주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 일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메단시를 방문, 아끼아 나스티옹 부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내년이면 광주와 메단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의 인적교류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메단과 많은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광주가 힘을 모은다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행을 맞이한 메단 부시장은 양 도시의 교류 수준의 확대에 뜻을 같이 하면서 메단시의 현안인 상·하수도 정비, 쓰레기 매립 시설 변경 등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윤 시장은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광주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는데 적극 협조하고 특별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며 “공무원 교류 등을 통해 노하우를 익히고 광주에서 기술고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어 메단시 의회를 방문해 헨리 존 휴터갈링 의장 등 의원들과 환담하며 의회 차원의 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방문단은 또 메단시가 2005년에 우호 증진 차원에서 시내 중심가에 지정한 광주로(廣州)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윤 시장은 3박5일 일정의 동남아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월 23일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찾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 선정위원회와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위원 등 20여 명이 임석대 등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둘러보며 1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

### 내일부터 이틀간 ... 지난 4월 이어 두번째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실태 점검과 국제적 가치를 검증하는 해외 및 국내 자문단의 현장실사가 28일부터 이틀간 현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세계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IGP) 사무총장 패트리 맥키버(Patrick J Mc Keever)와 국가지질공원 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의 우수성 및 지형과 역사유적의 특징, 인문학적 가

치 등을 평가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지질학회도 예비 현장실사의 점검 사항과 자문 내용을 검토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서류심사 후 진행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평가에도 이 자료는 활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2014년말 무등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고, 지난 4월 이뤄진 1차 현장실사에서는 무등산권 지질자원이 세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문화전당 관광객 유치 거점화 의료관광·차이나벨트 구축을”

### 박주선 의원 주최 ‘중·관광객 광주 유치’ 국제포럼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트래블젠과 카이사 그룹 등 중국 7개 대형 여행사 대표단, 전남대병원 윤명하 부원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총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문정현 책임연구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관광객 유치 거점화, 호남권 헬스케어 벨트 구축을 통한 중국 의료관광 활성화, 호남권 차이나관광벨트 구축 전략 등을 제시했다.

또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을 통한 중국 청소년 관광객 유치, 차이나 로드 등 특화지구 조성, 청정 웰빙 관광상품 개발, 한류 관광 프로그램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래블젠 여행사 주우하이성 부회장은 “광주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점이 중요하다”며 “중국 시장에 광주 관광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규슈 관광 예를 들며 “정부가 지자체 차원의 관광 보조금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저가 관광보다는 브랜드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의료 및 실버 관광을 특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총 한국관광공사 중국마케팅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일단 서울과 제주의 중국 관광객을 광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관광지로서 광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식 관광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테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숙 광주시 관광진흥과 사무관도 “광주시는 ‘중국과 친해지기’라는 정책적 테마를 정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국민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국립공원, 맛과 멋의 고향인 광주를 중국 여행객에게 널리 알려 광주를 중국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가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드렸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국회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중국 7개 여행사와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 계획안 전남도의회 통과

### 전남관광 사장 연임 않기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26일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날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00만㎡(33만평)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286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죽림1지구는 1974년 여수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40년 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여수시도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던 지역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신규택지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공익성과 수익성이 확보돼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여수 죽림1지구 사업은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는 2017년 말까지 승인, 2018년 말까지 보상 완료, 2019년 상반기 조성공사 착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여수경도리조트와 한옥호텔 등 관광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관광(주)의 사장을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직접 공사가 운영한 뒤 신입 사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공사는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오토제 271억원(예정자·부가가치세 제외), 연산재 116억원, 딸골 호텔 66억원 등을 1년 전부터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